2025-12-10

Economy Brief

미 신국가안보전략에 담긴 경제안보 업종에 주목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Check Point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에서 체제 혹은 이념 경쟁이 아닌 경제적 이익 그리고 마가(MAGA)로 대변되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우선 추진할 것을 더욱 분명히 함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역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종의 투자는 확대될 공산이 높음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주요 내용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경제 및 군사 분야 방향성을 제시하는 국가안보전략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당시부터 어느정도 예상된 내용이지만 이번 국가안보전략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체제 혹은 이념 경쟁이 아닌 경제적 이익 그리고 마가(MAGA)로 대변되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우선 추진할 것을 더욱 분명히 했다.

미국 우선주의 핵심 전략으로는 우선적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했다. 다만, 미국은 더 이상 전 세계 문제를 떠맡지 않으며(burden-shifting), 미국의 핵심 이익이 직접 걸린 지역만 우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소위 '돈로(Donroe) 독트린'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돈로주의'라고도 불리는 신먼로주의는 1800년대 유럽 갈등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국익에 집중하는 고립주의를 표방했던 먼로주의의 '확장·개정판'으로 평가된다. 이는 미국이 "수년간 방치된 서반구에서의 우위를 회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마약 문제로 베네수엘라에 군사적 공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현상도 '돈로(Donroe) 독트린'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관심이 큰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인 2022년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는 중국과의 체제 경쟁 및 이념 대결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번에는 체제 혹은 이념과 관련된 언급은 없는 반면에 중국과는 "상호이익이 되는 경제관계"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H200 칩을 중국에 수출하기로 허용한 것도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이익을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과는 다른 외교노선을 취했다.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를 주요 위협으로 규정해왔으나 이번 안보전략보고서에서는 러시아를 위협으로 규정한 표현이 삭제되었다. 이에 화답하듯 러시아 정부도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중-러 밀월관계 등으로 신냉전시대를 우려했지만 미국은 더 이상 체제 및 이념 경쟁보다는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 분석처럼 미국이 기존과 같은 민주주의 확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사업적 이익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유럽에 대해서는 "유럽이 문명 소멸(civilizational erasure) 위기"라고 진단해 유럽을 충격에 빠뜨렸다.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는 유럽의 개방적 이민정책과 과도한 규제를 거론하며 "유럽 국가들의 국가 정체성이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유럽의 존재감이 미미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反)이민을 내세운 '애국적 유럽 정당'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미국과 서유럽간 긴밀한 동맹관계, 즉 NATO에 대한 신뢰성 저하와 함께 유럽의 부담 증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인도 및 태평양에 대해서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지인 대만의 중요성 부각되었다.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제1 도련선(島線·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요한 것은 부담 전가(burden-shifting)다.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도 "미국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동맹은 국방 지출을 늘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국가안보전략에 담긴 경제안보 업종에 주목

금융시장 입장에서 국가안보 보고서에서 주목되는 것은 '경제안보'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의 근간이기 때문에 경제안보를 강조하였다.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는 다음의 6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첫째, 균형 잡힌 무역(Balanced Trade)이다. 미국 경제 번영을 저해하는 무역적자, 불공정한 무역장벽,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둘째, 핵심 공급망 및 중요 자원에 대한 접근 확보(Securing Access to Critical Supply Chains and Materials)이다. 첨단 공급망을 확보하고 보호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셋째, 재산업화(Reindustrialization)다. 첨단산업 생산과 그에 따른 투자, 혁신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보고서에서는 AI, 바이오테크 및 양자 컴퓨팅에서 미국의 기술과 표준이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넷째, 국방 산업 기반 재활성화(Reviving our Defense Industrial Base)이다. 여기에 주목되는 것은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산업 기반 전체를 강화하고 집단방위를 강화하도록 독려하겠다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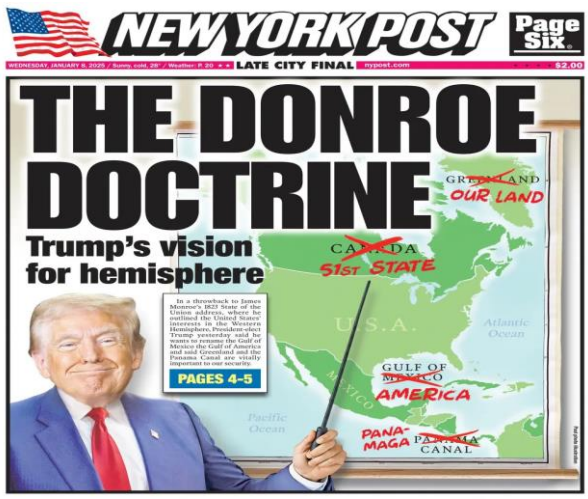
다섯째, 에너지 패권(Energy Dominance)이다.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미국내 전력망은 앞으로 수십년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미국 금융 섹터 패권(Preserving and Growing America's Financial Sector Dominance)이다.

미국 경제안보 강화 전략과 강화는 어찌보면 그 동안 금융시장이 관심을 보였던 성장산업과도 맥을 같이한다. 즉, AI, 반도체, 방산, 우주, 에너지 및 핵심광물, 에너지 인프라투자, 디지털 금융 등이다. 또한, JP 모건이 향후 10년간 1조 5,000억달러를 미국내 투자하겠다는 전략산업과도 유사하다.

요약하면 미국,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체제 혹은 이념 경쟁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경제안보 분야에 투자를 집중할 것이다. 이는 일부에서 거론되는 AI 투자 과열론과는 결이 다른 것이 분명하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역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종의 투자는 확대될 공산이 높다.

그림1. 트럼프 2기 행정부, 돈로(Donroe) 독트린 선언



자료: 뉴욕포스트,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JP 모건이 전략적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힌 업종

투자 분야	내용
핵심 광물 및 제조업	희토류, 반도체 원자재, 배터리 소재 등 공급망 강화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	군수산업, 미사일, 인공위성 기술
에너지	신재생 + 핵심 전력 인프라 투자
첨단 기술	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로보틱스 등 미래산업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박상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